

기형도 시에 나타난 ‘외로움’의 양상과 의미*

정치훈 **

-차 례-

1. 들어가며
2. ‘위대한 혼자’로의 ‘절단과 봉합’
3. ‘사랑의 실패자’로의 외로움과 ‘균열’
4. 나가며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55830)

**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BK 신진연구원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기형도 시세계의 흐름을 ‘외로움’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시기적 차이와 지향하고자 한 바를 밝히는 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형도는 생을 일찍 마감하면서 활동기간 역시 짧다. 그에 따라 유고시집 『입 속의 검은 잎』을 중심으로 다뤄지면서 기형도의 시세계가 명확하게 제시된 바 있지만 배제된 작품 역시 적지 않다. 또한 공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서 시세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조명받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형도의 시를 시기순으로 재구성하여 접근하였다. 개별 작품의 세부적인 시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핵심은 등단 이전 1978년 작품과 작고 직전 1989년 작품 간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기형도 시에서 ‘외로움’은 대상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에 따라 기형도의 시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증오’할뿐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또한 선택의 결과로 비롯된 ‘이미 늙음’의 상태에 대해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극복 불가능함’을 인지하면서 동시에 타자와의 ‘소통가능성’을 열어둔다. 기형도의 시에서 ‘외로움’은 좌절과 불안, 절망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자 하는 시적 주체의 윤리적 태도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기형도, 고독, 외로움, 『기형도 전집』, 절단, 봉합, 사랑, 균열

1. 들어가며

기형도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함으로써 시력(詩歷)이 짧다. 그에 따라 그의 시세계에 대한 접근은 공식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다시 말해 기형도의 시세계는 초기·중기·후기와 같은 시기 구분 없이 하나의 장으로 인식된다. 물론 시인으로서의 공식적인 행보를 살펴봤을 때,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안개」로 등단한 뒤 1989년 작고하기까지 4년이라는 짧은 기간 속에서 시기를 구분할 정도의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기형도 시는 대체로 유고시집 『입 속의 검은 잎』을 중심으로 다뤄지는 한편, 『기형도 전집』이 출간되면서 소설과 산문, 미발표 작품을 통해 미진하게 다루어진 주제 의식을 견고히 다져나간 바 있다.

다만, 기형도의 텍스트가 『입 속의 검은 잎』의 구성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형도가 작고하기 전 시집을 출간하기 위한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현에 의해 『입 속의 검은 잎』의 형태로 출간되었다. 시인이 애초에 생각해두었던 시집의 제목과는 다르다는 점을 통해 시집 구성에 있어 편찬자의 의도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기형도스럽게’ 다듬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작품에 접근하는 데 있어 그 방향이 다소 경직되어 있다는 점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곧, 그만큼 『입 속의 검은 잎』이 기형도의 시세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미 기형도에 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됨에 따라 김현의 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의를 밝힌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 다시 말해 기형도 시세계의 주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김현의 자장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진척을 이루었다.¹⁾ 다만, 본고에서는 『입 속의 검

1) 기형도 시세계에 대한 김현의 영향력, 특히 “도저한 부정적 세계관”과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에 대해서 유희석은 기형도에 대한 “비평적 매너리즘의 진원지”로 보면서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한다.(유희석(2003), 「기형도와 1980년대」, 『창작과 비평』, 겨울. 참고) 또한 강동호는 ‘기형도 신화’를 구축한 1990년대를 해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기형도 시에 나타난 ‘희망’을 재조명한다.(강동호(2019), 「희망이라는 이름의 원리-기형도의 90년대」, 『사이먼SAI』 26호, 국제한국문학문

은 잎』의 구성을 중심으로 기형도 시세계를 접근하는 것과는 달리 기형도 시의 외연을 확장하여 재구성한 뒤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외연의 확장은 『기형도 전집』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형도 전집』에는 유고 시집 『입 속의 검은 입』의 구성을 그대로 수록하는 한편, 5주기 추모 문집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와 새롭게 발굴한 미발표 시가 수록되어 있다. 『기형도 전집』 수록되어 있는 미발표 원고까지 포함한다면 기형도의 시의 시작점은 공식적으로 활동했던 1985년이 아닌, 1978년까지 확장할 수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지면에 발표된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등단 이전의 작품은 습작시로 놓이면서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입 속의 검은 잎』에도 등단 이전의 작품이 수록²⁾되었다는 것은 질적인 편차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미발표시에서 중점으로 살펴봐야 할 점은 완성도보다는 작품 안에 담긴 시인의 사유에 있다.

본고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바는 작품의 단순한 시기적인 확장에 있는 것이 아닌, 재구성에 있다. 시의 외연이 미수록 작품까지 확장됨에 따라 기형도 시의 출발점을 1978년으로 놓는다면 작고하기까지 약 1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길다고는 볼 수 없지만 80년대 민주화라는 시대적 상황은 사회의 변화를 촉구시켰고, 한 개인의 내면 또한 시대적 요구에 상응하며 변화를 겪기에는 충분하다. 따라서 기형도의 시세계를 여타의 시인처럼 초·중·후기와 같이 세부적인 시기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시세계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에, 『기형도 전집』에 수록된 작품을 시기순으로 배치한 뒤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³⁾ 주지하다시피 기형도의 시세계는 김현이 “도저한

화학회.) 임지훈은 기형도의 80년대 시를 집중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이상적 시공간이자 구체적 내용을 갖는 ‘봄날’에서 텅 빈 형식으로서의 ‘희망’의 이행을 통해 ‘비관과 절망’이 아닌, ‘한계’ 속에서 살아나가고자 했던 윤리적 태도를 밝혀냈다. (임지훈(2022), 『1980년대 최승자, 이성복, 기형도 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기형도는 1985년 1월 동아일보 「안개」로 등단했다. 이를 기준으로 「병」(1979), 「나무공」(1980), 「사강리」(1981), 「폐광촌」(1981), 「폭풍의 언덕」(1982), 「비가2」(1982), 「겨울 관화」(1982), 「소리1」(1983), 「종이달」(1983), 「소리의 뼈」(1984), 「우리 동네 목사님」(1984), 「나의 플래시 속으로 들어온 개」(1984)와 같이 등단 이전 작품이 12편 수록되었다.

부정적 세계관”과 “그로테스크 리얼리즘”⁴⁾이라고 칭한 이후 이를 중심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그만큼 기형도 시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과정보다는 ‘시인의 죽음’이라는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다. 또한 과정 역시 ‘시인의 개인사’라는 외재적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내재적 흐름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미흡하게 다루어졌다.

본고에서는 기형도 시의 흐름을 ‘외로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기형도 시는 시기와는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여럿 있다. 범박하게는 ‘겨울’을 비롯한 ‘계절’, ‘나이’, ‘어머니’와 관련된 시가 등단 이전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사랑’이라든가 ‘죽음’에 대한 이미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 ‘외로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에 근거한다. 첫 번째는 ‘외로움’ 역시 기형도 시 전반에 걸쳐 내재하고 있는 한편, 이에 대한 기형도의 사유를 『기형도 전집』에 함께 수록된 산문 「참회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기형도가 산문에 남긴 직접적인 사유를 통해 하나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외로움’의 특성과 관련된다. ‘외로움’은 감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개인의 상태와 타인 그리고 그 주변 상황과의 관계를 포괄한다. 요컨대,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형도 시의 통시적인 접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그 일환으로 ‘외로움’을 중심으로 그의 시를 살펴봄으로써 시기에 따른 변화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2. ‘위대한 혼자’로의 ‘절단과 봉합’

기형도 시에서 나타나는 외로움은 내면의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으

3) 기형도 시를 시기적으로 재구성하여 접근한 것은 임지훈(위의 글,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에서 다룬 바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1970년대 미발표 시까지 포함하여 접근한다. 개별 작품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형도 전집』에 수록된 작품 연보를 따른다.

4) 김현(1989), 「영원히 닫힌 빈방의 체험」, 『입 속의 검은 잎』 해설, 문학과지성사.

며,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주체의 ‘혼자 있음’이라는 상태를 담아낸다. 그에 따라 기형도 시에서 ‘외로움’은 ‘고독’이라는 보다 존재론적 층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는 ‘결핍’에서 비롯된다. 외로움의 근간에는 ‘결핍’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결핍이 고통이나 불편한 느낌을 담아낸다면, 고독은 경험이나 생각, 감정 등에 열려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고독은 특정한 감정만을 포함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감정 혹은 중립적인 감정으로 놓이기도 한다.⁵⁾

기형도 시에 대해서 “그가 가진 외로움의 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⁶⁾이라는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듯, ‘외로움’은 작품을 써 내려가는데 있어 일종의 동력이자 작품 도처에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형도의 ‘외로움’을 ‘소외’로 접근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⁷⁾ 다만, ‘소외’는 ‘대상으로부터 소외됨’의 형식을 전제하며, 기형도 시에서 ‘외로움’이 갖는 핵심은 ‘혼자 있음’이라는 소외의 상태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의 전환에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산문에 나타난 그의 사유에서는 ‘외로움’을 감정이나 ‘소외’로만 접근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아, 사실 소속감이 없다는 것(어쩌면 이 말 자체도 나의 주관이다. 여기엔 바로 내가 그 소속감을 나에게 부여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인다)은 참으로 불쾌한 일이다. 그저께 응춘군 집에 가면서 내가 절실하게 느낀 것은 내가 외로움

5) 외로움과 고독이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가령,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은 고독에 대한 욕구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혼자 있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감정적·사회적 외로움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혼자 있고 싶다는 욕구가 거의 없지만 정작 혼자 있어도 별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대개 일부로 고독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르스 스펜젠 저, 이세진 역, (2019)『외로움의 철학』, 청미, 162쪽 참고.)

6) 정효구(2009), 「차가운 죽음의 상상력」, 박해현 외 역, 『정거장에서의 충고』, 문학과학사, 285-286쪽.

7) 기형도의 ‘소외’와 관련하여 정교진은 시인의 어린 시절 가정으로부터의 소외와 성인 이후 부조리한 사회로부터의 소외로 비롯된 것임을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파악한 바 있다.(정교진(2005), 『기형도 시에 나타난 소외 양상 연구』,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에 더 나아가 임세진은 소외의 원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시인의 소외 의식이 작품 내에서 ‘안개, 구름, 비’와 같은 자연 이미지를 구체화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임세진(2011)「기형도 시에 나타난 소외 이미지 연구」, 『겨레어문학』 47집, 겨레어문학회.)

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이다. 아님테, 외로움은 잘 견디는 ‘편’이다. 외로움 속에 있을 때는 오히려 나는 외로움을 방해하려는 요인을 배격하는 편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외로움의 상태로까지 가는 과정을 두려워한다는 결론이다. 그건 사실이다. 어찌면 보편일 것이다. 인간의 ‘적응성’이라는 것이 이 말을 입증한다. 사람들이 탈선이나 파행,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한 세계의 속성 때문이 아닌, 그러한 차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이 나에게 하나의 안도감도 주지 못한다. 오히려 나는 다시 위의 보편이라고 결정해버린 논리를 부정한다. 나의 외로움 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외롭지 않았을 때의 즐거움이나 쾌락에 대한 보상적 요소가 나의 외로움 속에 숨어 있다. 책이나 잠, 고민 등이 그것이며, 고통이 따르는 외로움의 보상은 인간에게 숨어 있는 마조히즘을 일깨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절망이란, 아니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아, 수정하자. 사람들은 전혀 보상 행위가 없는 다른 상태의 공포에 대한 예비 공포를 그 이행과정에서 느낄 뿐이다. 사실 보상 행위가 있는 ‘혼자 있음’(외로움의 의미보다 정확한 뜻인 것 같다)의 고정은 약간의 망설임이 있을 뿐 그렇게 무섭지 않다. 문제는 그 보상이다. 나의 휴학, 소속감 상실에 따르는 심리적 보상은 무엇인가. 막연한 기다림인가. 생명조차 자아에서 타아로 전기하고 지극히 유물론적인 기계로의 변이 그것인가.

-산문 「참회록」(1981)부분, 『기형도 전집』, 8)

기형도의 산문 「참회록」은 시인이 1981년 군입대를 앞두고 휴학할 때 쓴 글이다. 이 글에서는 ‘외로움’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진다. 위의 인용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기형도는 자신의 ‘외로움’을 “혼자 있음(외로움의 의미보다 정확한 뜻)”이라고 서술한다. 그에 대한 분석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휴학’을 하면서 발생한 ‘소속감 없음’과 그로 인한 ‘불쾌’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불쾌’는 ‘외로움에 대한 무서움’으로 이어진다. 이는 곧 일반적인 층위의 ‘외로움’과 일맥상통하지만 곧 이어 ‘외로움’에 대해 근원적으로 접근한다. 기형도는 스스로 ‘외로움’을 ‘잘 견디는 편’이며, “오히려 나는 외로움을 방해하려는 요인을 배격하는 편”이라 말한다. 즉, 시인에게 있어 ‘외로움’이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이 내포하고 있음

8) 본고에서 인용하는 기형도의 글은 기형도 전집 편찬위원회 엮, 『기형도 전집』, 문학과지성사, 1999.의 판본에 따른다. 이후 인용 출처는 쪽수만 표기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외로움’의 두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자발적 외로움’과 ‘비자발적 외로움’이다. ‘자발적 외로움’은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데, 기형도가 “나의 외로움 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외롭지 않았을 때의 즐거움이나 쾌락에 대한 보상적 요소가 나의 외로움 속에 숨어 있다”라고 언급한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책, 잠, 고민’과 같이 스스로 ‘외로운 상태’에 빠짐으로써 ‘불안’보다는 일종의 ‘보상’, ‘쾌’를 얻을 수 있다. 반면, 기형도가 ‘외로움’에 대해서 무섭다고 언급하는 대목은 바로 부정적인 의미로써 ‘비자발적 외로움’에 있다. ‘보상이 없는 홀로 있음’에 대해서 “생명조차 자아에서 타아로 전가하고 지극히 유풃론적인 기계로의 변이”라고 말하면서 극도의 수동적인 태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참회록」에서 기형도는 ‘외로움’의 두 가지 측면, ‘자발적 외로움’과 ‘비자발적 외로움’으로 접근하면서 전자를 옹호하는 한편 후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무가 서 있다. 자라는 나무가 서 있다. 나무가 혼자 서 있다. 조용한 나무가 혼자 서 있다. 아니다. 잎을 달고 서 있다. 나무가 바람을 기다린다. 자유롭게 춤추기를 기다린다. 나무가 우수수 옷을 채비를 한다. 천천히 피부를 닦는다. 노래를 부른다.//나는 살아 있다. 解氷의 江과 얼음속을 오가며 살아 있다.//바람이 분다. 바람이 은빛 바늘 꽃으며 분다. 기쁨에 겨워 나무는 목이 맨다. 갈증으로 병든 잎을 떨군다. 기쁨에 겨워 와그르르 웃는다. 나무가 웃는다. 자유에 겨워 혼자 춤춘다. 폭포처럼 웃는다. 이파리들이 물고기처럼 꼬리치며 떨어진다. 흰 배를 뒤집으며 해엄친다. 바람이 빗깁 고운 웃음을 쓸어간다. 淸潔한 겨울이 서 있다.//겨울 속 깊숙이 찻눈 뿌리며 하늘이 조용히 安心한다.

-「잎·눈 [雪]·바람 속에서」(1980), 142쪽.

앞서 언급한 바, 『입 속의 검은 잎』에 등단 이전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듯, 기형도의 시는 시기적인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일관된 시세계를 제시하기 위해 그만큼 시집 구성에 힘썼음을 의미하지만 일부 시편들이 배제되었음을 보여준다. 바로

여기서 기형도 시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다. 위의 「잎·눈 [雪]·바람 속에서」는 작품 연보에 따르면 1980년에 쓴 초기 작품⁹⁾으로 기형도 시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나무’, ‘잎’, ‘눈’, ‘겨울’이 등장한다. 그러나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곧, 암울하고 비극적인 면을 최대한 견뎌내고자 하는 시적 주체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시에서 ‘혼자 서 있는 나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⁰⁾ 산문 「참회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로움’에 대한 사유를 엿볼 수 있다. “외로움 속에 있을 때는 오히려 나는 외로움을 방해하려는 요인을 배격”한다는 기형도의 말을 상기해보는다면, 작품에서 ‘함께 달려 있는 잎’은 ‘외로움’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기에 ‘잎’은 “갈증으로 병든 잎”으로 구체화되며 불어오는 바람에 ‘떨구어’내면서 ‘혼자 있음’을 이루어낸다. 이에 대해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혼자 있음’이라는 상황을 통해 ‘살아 있음’을 이끌어낸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대목은 ‘혼자 있음’으로 비롯한 ‘기쁨’과 ‘안심’이다. 기쁨은 곧 주체의 ‘쾌락’과 연관되는데 이 역시 기형도의 외로움에 대한 사유와 맞닿아 있다. 이 시에서 “기쁨”은 일차원적인 ‘쾌락원칙’ 곧, 불쾌를 최소화하고 쾌감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갈증으로 병든 잎”이라는 ‘불쾌’를 제거하고 ‘쾌’를 획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웃음’의 강도가 ‘폭포처럼’ 지나칠 정도로 거세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때 쾌락은 불쾌를 감소해서

9)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 등단 이후 작고하기까지 실질적인 활동을 중점으로 놓는다면 4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으며, 그에 따라 기형도의 시세계는 초기·중기·후기로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기형도 전집』을 통해 미발표 작품까지 확장해서 놓고 볼 때, 1978년에서 1989년까지 11년이라는 기간이 놓이는데, 본고에서는 편의상 가장 앞선 시기인 1970년대 후반에서 등단 직전까지를 초기, 1989년 작고 직전 시기를 후기로 지칭한다.

10) 기형도 시에서 ‘나무’를 비롯한 ‘잎’, ‘꽃’ 등의 ‘식물 이미지’는 시적 주체와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놓이기도 한다. 그중에서 ‘나무’는 198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에 의해 ‘죽음’ 앞에서 침묵하는 인간의 형상으로 그려진다.(서은송(2021), 『기형도 시에 나타난 식물 이미지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쪽.) 이와 같이 기형도 시에서 ‘나무’는 시적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본고에서는 1980년대 초 등단 이전 작품에 대해서 시대적 상황에 앞서 개인의 내면을 보다 형상화한 것으로 접근한다.

얻는 것이 아닌, 쾌락의 과잉으로 인한 ‘고통을 동반한 쾌락’이라는 역설적인 구조를 지닌다.

앞서 살펴본 「참회록」에서 “고통이 따르는 외로움의 보상은 인간에게 숨어 있는 마조히즘을 일깨운다”라고 언급했을 때, 이는 ‘고통을 동반하는 쾌락’과 곁을 함께 한다. 주지하다시피 기형도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겨울’은 혹독한 추위를 동반하며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이끌어내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잎·눈 [雪]·바람 속에서」는 시적 주체가 ‘불어오는 바람’을 받아들이고 ‘병든 잎을 떨균’ 뒤 ‘혼자’ 있게 될 때, ‘청결한 겨울’ 속에서 이끌어내는 ‘안심(安心)’은 고통이 없는 생의 영역을 그려내는 것이 아닌, 쾌락의 역설적인 구조를 통해 형성한 죽음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안심’은 내면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과는 거리가 있다. 기형도 시에서 ‘혼자 있음’이라는 폐쇄성에는 ‘죽음 충동’이 자리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어느 영역에도 소속되지 않는 상황을 지속시킨다. 따라서 기형도에게 있어 ‘살아 있음’이란 곧, 온전히 삶의 영역에 위치하는 것이 아닌,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1

그대, 아직 내게/무슨 헤어질 여력이 남아 있어 붙들겠는가./그대여,X자로 단단히 구두끈 조이는 양복/소매끈에서 무수한 달의 지느러미가 떨어진다./떠날 사람은 떠난 사람.그대는 천국으로 떠난다고/장기 두는 식으로 용감히 떠난다고/짧게 말하였다.하늘나라의 달.

2.

(...)어차피 내가 떠나기 전에 이미 나는 혼자였다. 그런데/너는 왜 천국이라고 말하였는지. 네가 떠나는 내부의 유배지는/언제나 푸르고 깊었다. 불더미 속에서 무겁게 터지는 공명의 방/그리하여 도시, 불빛의 사이렌에 썰물처럼 골목을 우회하면/고무줄처럼 먼저 튕겨나와 도망치는 그림자를 보면서도 나는/두려움으로 몸을 떨었다./떨리는 것과 잠과 타종 사이에서 비틀거리는 내 유약한 의식이다./책갈피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우리들 창백한 유년/식물 채집의 꿈이다/여름은 누구에게나 무더웠다.//

3.

잘 가거라, 언제나 마른 손으로 악수를 청하던 그대여. 밤새워 호루라기 부는

세상 어느 위치에선가 용감한 꿈 꾸며 살아 있을/그대. 잘 가거라(...)/온통 체온계를 입에 물고 가는 술한 사람들 어디로 가죠?(꿈을 생포하러)/예? 누가요(꿈 따위는 없어) 모두 어디로, 천국으로/세상은 온통 크레졸 냄새로 자리잡는다. 누가 떠나는 죽든/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혼자였다. 살아 있으라, 누구든 살아 있으라./턱턱, 짧은 숨 쉬며 내부의 아득한 시간의 숨 신뢰하면서/천국을 믿으면서 혹은 의심하면서 도시, 그 변증의 여름을 벗어나면서.

-「비가2-붉은 달」(1982) 부분, 114-116쪽.

기형도 시에서 ‘외로움’의 형상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1982년에 쓴 것으로 알려진 「비가2-붉은 달」에서는 ‘이별’의 상황 속에서 ‘혼자 남은’ 시적 주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그’와의 이별을 앞두고 붙잡아보려고 하지만 ‘단단히 구두끈’을 조이는 것을 통해 필연적으로 ‘떠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가 떠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통해 ‘그’와의 이별은 ‘사별(死別)’이라 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적인 이별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나’와 ‘그’의 차이는 ‘그’는 다가온 이별에 이미 마음을 다 잡고 있는 반면에 ‘나’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별은 상호 간 멀어짐이며 그 결과는 각각의 ‘혼자 있음’이다. 이미 떠나갈 것을 다짐한 ‘그’의 경우 고립된 내면, 즉 ‘내면의 유배지’가 여전히 ‘푸르고 깊은’ 상태이지만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에 대해 이별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어차피 내가 떠나기 전에 이미 나는 혼자였다”라는 구절을 주의 깊게 봐야한다. 이는 곧, ‘혼자 있음’에 대해서 이미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적 주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혼자 있음’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참회록」에서 “나는 그 외로움의 상태로까지 가는 과정을 두려워”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혼자 있음’까지의 ‘과정’에서 ‘두려움’이 발생하며, 또한 작품에서 ‘이별’로 인한 ‘홀로 있음’은 ‘기쁨’이라는 ‘쾌’라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즉, 이별은 “전혀 보상 행위가 없는 다른 상태”라 할 수 있으며, “공포에 대한 예비 공포를 그 이행과정에서 느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과정’에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뿐, 지향점은 바로 ‘혼자 있음’에 있다.

따라서 시적 주체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은 ‘혼자 있음’으로의 진입이다. 그 시작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정에서 이루어진다. ‘그’의 경우 ‘푸르고 깊음’이라는 ‘내부의 유배지’가 외판 섬의 이미지로 외부와 단절되어 있지만 잔잔하고 안정감을 주는 한편, ‘나’의 경우 ‘도시’ 어느 곳에도 소속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인다. 핵심은 ‘나’ 역시 자신의 ‘두려움’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비틀거리는 내 유약한 의식”으로 돌려놓는 것에 있다. 그와 함께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서 확장을 꾀하는데, 이를 통해 보다 ‘근원적인 불안’으로 접근한다. 곧, ‘유년’에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소외’는 ‘창백한’한 것으로 놓으면서 ‘누구에게나 무덤게’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개인의 ‘두려움’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으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때 시적 주체는 ‘혼자 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즉, ‘두려움’은 개인의 한계로 비롯된 것이 아닌 인간 존재가 지닐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식함에 따라 비로소 ‘혼자 있음’까지 과정의 끝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나’는 “그대, 잘 가거라”고 할 수 있으며, “누가 떠나든 죽든/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혼자”로 있게 된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기형도의 ‘위대한 혼자’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면의 안정을 얻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두려움의 극복’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단절과 봉합’이라 할 수 있다. 타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되 동시에 ‘단절’이 이루어지면서 각각 ‘위대한 혼자’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단절을 부각하는 요소가 바로 “꿈 따위는 없어”로 표현되는 ‘꿈 없음’과 “천국”이다. 위의 「비가2」에서 암시하는 ‘사별’을 포함한 이별한 대상과 조우할 수 있는 공간은 ‘꿈’이다. 물론 실체로서의 대면은 아니지만 대상이 떠나간 흔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비가2」에서는 ‘꿈’ 공간을 제거한 뒤, 현실을 초월한 “천국”이라는 공간은 대상과의 ‘단절’을 야기한다.

여기서 기형도의 시적 주체에게 있어 ‘혼자 있음’의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내면의 평안이나 일종의 ‘쾌락’을 얻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살아 있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있다.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태”, 곧 ‘무(無)’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막기 위해 대상과의 ‘절단’을 ‘봉합’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세계를 지켜나간다. 다만, 그 흔적은

남기 마련이며 살균, 소독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크레졸 냄새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구절은 스스로 봉합에 대한 인지 역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위 서정의 세계처럼 ‘세계의 자아화’로 합일을 이루는 것이 아닌 ‘세계와 자아의 절단과 봉합’의 형식으로 세계를 구축한다.

이렇듯 기형도의 등단 이전 작품에서는 ‘비극적 세계’와는 결이 다른 ‘외로움의 세계’를 보여준다. 그의 시적 주체에서 살피볼 수 있는 ‘외로움’의 형상은 ‘위대한 혼자’로 나타난다. 기형도 시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혼자’는 ‘절단과 봉합’을 통해 ‘살아 있음’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3. ‘사랑의 실패자’로서의 고독과 ‘균열’

기형도의 시세계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배경’이다. 사회적인 층위에서나 혹은 개인적인 층위에서 특정한 ‘사건’은 일종의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먼저 사회적인 배경을 볼 때,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로 시대적 요청에 의해 거대담론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기형도 역시 감응해나갔다. 특히,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서 졸업 후 신문에 정치부에 속하면서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기형도의 개인적인 배경을 살펴본다면, 군입대라든가 여행, 이별을 겪으면서 내면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적인 층위에서 접근할 때는 여타의 더욱 오랜 기간을 활동한 시인들과는 달리 1980년대에만 국한되어있다는 점과 개인적인 측면에서 또한 일시적일 뿐 시세계가 본격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기형도의 시세계에서 어떠한 흐름을 밝히고자 한다면, 특정 시기에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어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는 전반을 관통하는 요소의 변화에 주목해야한다. 여기서 바로 ‘외로움’이 기형도의 시세계를 관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등단 이전의 작품과 이후의 작품에서는 차이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 등단 이전에서의 ‘외로움’은 ‘살아 있음’을 유지하기 위해 ‘절단과 봉합’의 형식을 통

해 ‘살아 있음’을 지켜나갔다. 그러나 그 대가로 주체와 타자와의 분리를 넘어서 단절과 고립을 야기함과 동시에 일종의 ‘후유증’을 남겼는데, 이는 기형도의 시에서 ‘이미 늙음’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내 얼굴이 한 폭 낯선 풍경화로 보이기/시작한 이후, 나는 主語를 잃고 헤매
 이는/가지 잘린 늙은 나무가 되었다.//가끔씩 숨이 턱턱막히는 어둠에 체해/반토
 막 영혼을 뒤돌어 눈을 뜨면/잔인하게 죽어간 붉은 세월이 곱게 접혀 있는/단단
 한 몸통 위에,/사람아, 사람아 단풍든다./아아, 노랗게 단풍든다.

-「병」(1979), 106쪽.

처음부터 우리는/손바닥에 손금을 새기듯/각기 老人의 肖像 하나를 키우며/
 그렇게 成長하는 것이다//그 사이에 꽃이 피고,/바람을 섬기는 兒童하나/歲月을
 건네주는 交換手의 형클어진 얼굴을 하고/曜日 없이 돌아가는 겨울 속에 주저앉
 는다.

-「교환수」(1979)부분, 170쪽.

기형도 시세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늙음’은 주로 ‘죽음’과 관련해서 다루어져왔다. 시인이 개인시집을 준비하면서 표제작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알려진 「정거장에서의 충고」의 가장 마지막 구절 “나는 이미 늙은 것이다”¹¹⁾는 시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맞물리면서 비극적인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 그에 따라 ‘늙음’에 대한 여러 의미가 밝혀진 바 있지만, 시인의 가난했던 유년 체험과 연관 지음으로써 그 의미를 견고하게 다져나갔다. 유년기와 가족에 대한 자전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만큼 생애를 견주어보는 작업이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유년 시절 열등 의식이 있었다고 성급히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그의 말은 일리가 있는 대신 너무 일원론적이다.”¹²⁾라고 말한 바와 같이 작품 내적인 흐름을 통해 ‘늙음’에 대한 의미를 접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늙음’이라는 표현에 주목한다면, 그에게 있어 ‘늙음’은 앞으로

11) 『기형도 전집』 64쪽.

12) 『기형도 전집』, 316쪽.

다가올 예정이 아닌, 지나간 것을 의미한다. 이를 증명하듯, 등단 이전에 쓴 작품에서부터 ‘늙음’은 꾸준히 등장한다. 위의 「병」과 「교환수」는 1970년대 후반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형도의 초기작이라 할 수 있으며, ‘늙음’에 대한 기형도의 사유 살펴볼 수 있다. “내 얼굴이 한 폭 낮선 풍경화”로 보인다는 말은 곧, 내면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主語를 잃고 헤매이는”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시적 주체는 “가지 잘린 늙은 나무”로 형상화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늙은 나무’에 대한 구체적인 속성에 있다. ‘늙은 나무’와 ‘단단한 몸통’의 조합은 ‘이미 늙음’이라는 정신과 육체의 불균형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늙은 나무’는 바깥으로 뻗어 나가는 ‘가지’가 절단되어 있는 반면, ‘단단한 몸통’을 지니고 있다. 이는 곧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 최소한의 주체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환수」에서는 ‘거래’의 형식으로 ‘늙음’이 부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시에서 핵심은 “성장”의 조건은 “노인의 초상 하나를 키우”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 ‘거래’는 ‘필연적인 것’으로 놓인다는 점이다.

사내는 말이 없다, 그는 함부로 자신의 시선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한곳을 향해 그 어떤 체험들을 착취하고 있다/술한 사건들의 매듭을 풀기 위해, 얼마나 가혹한 많은 방문객들을/ 저 시선은 노려보았을까, 여러 차례 거둬되는/어혹과 유혹을 맞본 자들의 그것처럼/그 어떤 육체의 무질서도 단호히 거부되는 어깨/어찌 보면 그 어떤 질투심에 스스로 감격하는 듯한 입술/분명 우두머리를 꿈꾸었을, 머리카락에 가리어진 귀/그러나 누가 감히 저 사내의 책임을 뒤집어쓰랴/사내는 여전히 말이 없다, 비로소 생각났다는 듯이/그는 두툼한 외투 속에서 무엇인가 끄집어낸다/고독의 완강한 저항을 뿌리치며, 어떤 대결도 각오하겠다는 듯이/사내는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얼굴 위를 걸어다니는 저 표정/뼈격이는 나무 의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밀어놓고/사내는 그것으로 탁자 위를 파내기 시작한다/전장한 덩치를 굽힌 채, 느릿느릿/그러나 허겁지겁, 스스로의 명령에 힘을 넣어 가며//나는 인생을 증오한다

-「장밋빛 인생」부분(1987), 53-54쪽.

‘이미 늙음’을 필연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가지 잘린 나무’와 같은 형상으로 세상 위에서 있을 수 있었지만, 1985년 등단 이후 작품에서는

그러한 ‘필연’에 비껴서고자 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1987년에 발표한 「장밋빛 인생」은 ‘나’보다는 ‘사내’를 중심으로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의 핵심은 마지막 구절 “나는 인생을 증오한다”에 있다. ‘사내’에 대한 이야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증오’로의 전환은 ‘나’는 ‘사내’처럼 “고독의 완강한 저항”을 뿌리칠 수 없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시를 살펴보면 ‘사내’는 ‘건장한 덩치’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자신의 시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떤 체험들을 착취”를 통해 “스스로의 명령에 힘”을 부여한다. ‘말이 없음’에도 하고자 하는 바를 곧바로 실천에 옮긴다. 이러한 ‘사내’에 대해서 ‘나’는 ‘질투’를 느끼는 한편, ‘자기 증오’로 귀결하는 것은, ‘이미 늙음’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타자에 대한 ‘질투’나 자신에 대한 ‘증오’는 ‘이미 늙음’에 대한 좌절이 아닌 최선의 저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월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성장’했기에 이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즉, 기형도의 시적 주체에게 ‘회춘(回春)’이란 없다. 그의 후기 시 “그 긴 겨울을 견뎌낸 나뭇가지들은/봄빛이 닿는 곳마다 기다렸다는 듯 목을 분지르며 떨어진다.”(「노인들」, 1988)¹³⁾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기형도의 시에서 ‘봄’의 이미지는 ‘생명’이나 ‘회복’이라기보다는 ‘일회성’에 가깝다. 계절은 순환하지만 ‘다가오는 봄’은 ‘지나갔던 봄’과 다르며,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내포한다. 따라서 시적 주체에게 있어 ‘이미 늙음’은 되돌릴 수 없는 ‘회복 불가능성’으로 놓인다.

기형도의 후기 시편의 핵심은 ‘이미 늙음’으로 표상되는 ‘회복 불가능성’에 대한 태도에 있다. 그는 ‘과거’로 봉합된 지점을 다시 되새김함으로써 균열을 일으킨다.

손님이 돌아가자 그는 마침내 혼자가 되었다/(...)아아, 오늘은 유쾌한 하루였다, 자신의 나지막한 탄식에/사내는 견잡을 수 없이 불쾌해진다. 저 성가신 고양이/그는 불을 켜기 위해 방안을 가로질러야 한다/나무토막 같은 팔을 쳐들면서 사내는, 방이 너무 크다/왜냐하면, 하고 중얼거린다, 나에게도 추억거리는 많다/아무도 내가 살아온 내용에 간섭하면 안 된다/ 몇 장의 사진을 들여다보던 사내가 한숨을 쉰다/(...)그렇다, 이런 밤은 저 게으른 사내에게 너무 가혹하다/내가

13) 『기형도 전집』, 88쪽.

차리리 늙은이었다면! 그는 사진첩을 내동댕이친다/추억은 이상하게 중단된다,
그의 커다란 슬리퍼가 벗겨진다/손아귀에서 몸부림치는 작은 고양이, 날카로운
이빨 사이로 독한 술을 쏟아붓는, 저 헐떡이는, 사내

-「추억에 대한 경멸」(1988) 부분, 60쪽.

기형도의 시세계에서 ‘과거를 되새김’은 ‘추억’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장밋빛 인생」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추억에 대한 경멸」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추억’이라는 과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멸’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더 다루어야 할 내용은 바로 추억을 경멸하는 방식에 있다. 「장밋빛 인생」과 같이 이 시에서도 ‘사내’가 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시적 주체의 직접적인 발화에 있다. 「장밋빛 인생」에서 등장하는 ‘사내’와 ‘나’는 개별적인 주체로 놓인다면, 「추억에 대한 경멸」에서의 ‘나’는 ‘사내’의 직접적인 발화이다. 즉, 시적 주체는 ‘사내’의 입을 빌려서 ‘추억’에 대한 사유를 담아낸다. 이와 같이 사내를 통해서 말하는 이유는 ‘사내’가 “아무도 내가 살아온 내용에 간섭하면 안 된다”고 언급한 대목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가 말한 ‘아무도’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이미 지나간 ‘살아온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도 간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적 주체의 ‘추억’은 이전의 일을 떠올리는 형식이 아닌 ‘추억 그 자체’에 대한 사유로 이루어지며 그 또한 ‘사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더 살펴볼 대목은 ‘사내’는 단순히 시적 주체의 분신으로 놓이지 않는다. 시적 주체와 ‘사내’와는 일종의 ‘시차(時差)’가 있는데, “내가 차리리 늙은이었다면”라 말하는 외침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시적 주체가 이미 늙었다면, ‘사내’는 오히려 늙고 싶어 한다. ‘사내’에게 있어 ‘늙음’은 ‘혼자 남은’ 상황 속에서 몰려오는 ‘견잡을 수 없는 불쾌’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놓인다. 다만, “추억은 이상하게 중단된다”와 같이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음’을 혹은 ‘이상하게 중단’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포한다. 그렇기에 ‘이미 늙은’ 시적 주체는 과거를 ‘이상하게 중단’하는 것을 통해 ‘봉합’했던 과거에 지속적으로 균열을 일으킨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기형도 시

의 ‘사랑’에 있다.

내/靈魂이 타오르는 날이면/가슴앓는 그대 庭園에서/그대의/온 밤내 뜨겁게
토해내는 피가 되어/꽃으로 설 것이다.//그대라면/내 허리를 잘리어도 좋으리.//
질은 입김으로/그대 가슴을 집고/바람 부는 곳으로 머리를 두면/선 채로 잠이
들어도 좋을 것이다.

-「꽃」(1979), 169쪽.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준다/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단 한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질투는 나의 힘」(1989), 68쪽.

등단 이전에 썼던 작품 중 「병」(1979)과 같이 일부는 『입 속의 검은
입』에 수록되면서 비극적인 시세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미발
표 작에서는 의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작품도 있다. 위의 「꽃」은
기형도 시에서 보기 드문 연애시라고 할 수 있는데, 대상을 향한 애뜻
한 마음을 ‘뜨겁게’ 표출한다. 기형도 초기작에서는 설사 대상이 그 마
음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 ‘혼자 있음’의 상황이 오더라도
그를 향한 마음은 변치 않음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꽃」에서는 어떠한
균열도 없는 세계를 그려낸다. 그러나 기형도가 작고하기 직전에 발표
한 작품 「질투는 나의 힘」을 보면 그러한 ‘사랑’에 대한 균열을 일으킨
다. 여기서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지만 그 결과는 대상과의
합일이 아닌 ‘홀로 있음’과 ‘탄식’이다. 「꽃」에서 사랑의 결실을 맺고자
했던 태도는 「질투는 나의 힘」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사랑의 실패’
를 명시한다.

앞서 살펴본 ‘질투’나 ‘경멸’처럼 ‘사랑의 실패’ 역시 표면적으로는 부
정적인 의미로 보이지만, 실은 ‘사랑의 실패’의 지점에서 ‘나’와 ‘타인’

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내 허리를 갈리어도 좋” 아하고자 하는 사랑은 기형도 시편 곳곳에서 나타나는 ‘가지 잘린 나무’의 이미지로 드러나듯 자기 자신을 ‘절단’하는 것과 같다. 이와 함께 대상과의 합일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상과의 낙관적인 전망을 그리며 “선 채로 잠이 들어도 좋을 것이다”와 같이 ‘봉합’을 통해 ‘사랑’을 지켜나간다. 그에 따라 대상과의 ‘이별’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대한 고독자’의 형상을 보인다. 여기서 자기 절단과 봉합으로 타자와의 분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만 ‘단절’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질투는 나의 힘」에 이르러서 보여주는 ‘사랑의 실패자’라는 형상은 타자와의 단절이 아닌 ‘불일치’에 접근함으로써 오히려 타자와 더 나아가 세상과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볼 수 있다. 기형도의 작고 직전 후기 작품에서 보여주는 ‘절규’에 가까운 시적 주체의 토로는 타자와 세상과의 단절에서 오는 ‘좌절’이 아닌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최선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4. 나가며

기형도 시세계의 흐름이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짧은 시력에도 있겠지만 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미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입 속의 검은 잎』을 중심으로 기형도 시를 부분적으로 다루면서 그의 시세계는 더욱 명확하게 제시된 바 있지만, 이면에는 배제된 시 역시 적지 않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외부적 상황에 따른 기형도의 신변 변화에 있다. 민주화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자 활동을 하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남들 못지않게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역시 그의 시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시기’라고 할 만큼의 분류까진 아니더라도 이전 시기와의 차이를 통해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형도 전집』을 통해 그의 시를 시기적으로 재구성하여 접근해보았다. 물론 작품의 배열이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발표작의 경우 ‘발표일’이 기준이 되며, 미발표

작의 경우 ‘탈고일’이 기준이 된다. 그렇기에 발표작은 더 이전 시기에 쓰였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세부적인 시기까지 명확하게 재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인 구성이 중요한 것은 바로 등단 이전 1978년과 작고 직전 1989년 작품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기형도 시의 흐름을 ‘외로움’을 중심으로 접근해보았다. 기형도 시세계 전반에서 ‘외로움’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주체와 타자,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 기형도의 등단 이전 작품에서는 흔히 알려진 ‘비극적 세계’와는 결이 다른 ‘고독의 세계’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때 시적 주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고독’의 형상은 ‘위대한 혼자’로 나타난다. ‘위대한 혼자’는 ‘절단과 봉합’을 통해 ‘살아 있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등단 이후 후기 시편에서는 ‘외로움’의 형상이 ‘위대한 혼자’에서 ‘사랑의 실패자’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이미 늙음’에 있다. ‘절단과 봉합’의 형식을 통해 ‘자신’을 지켜나가고자 했으나 그 대가로 주체와 타자와의 분리를 넘어서 단절과 고립을 야기함과 동시에 ‘이미 늙음’이라는 ‘후유증’을 남겼다. 그에 따라 되돌이킬 수 없음을, ‘불가능함’을 받아들이는 한편, ‘봉합’해 두었던 지점, 즉 추억으로 표상되는 ‘과거’를 되새김함으로써 균열을 일으킨다. 이때 드러나는 ‘사랑의 실패자’로서의 고독의 양상은 비록 ‘혼자 있음’의 상태에 놓여있지만 타자와의 ‘불일치’에 접근함으로써 타자와 세상과의 소통가능성을 열어두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로움’을 통해 통시적인 흐름에 따라 기형도 시를 살펴봤을 때 찾아볼 수 있는 의의는 바로 시적 주체의 주체적인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기형도 시에서 ‘외로움’은 ‘당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에 따라 기형도의 시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증오’할 뿐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늙음’으로 비롯된 선택의 결과에 대해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극복 불가능성’을 인지하면서 동시에 타자와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두는 시도는 기형도의 시가 좌절과 불안, 절망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 주체적인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깊어지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loneliness' in Ki Hyeong-do's poetry

Jeong, Chihun(Konk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difference in time and what he wanted to pursue by examining the flow of Ki Hyeong-do's poetry world with a focus on 'loneliness'. As is well known, Ki Hyeong-do's life ended early and his active period was also short. Accordingly, Ki Hyeong-do's poetic world has been clearly presented, focusing on the posthumous poetry collection "Black Leaf in the Mouth", but there are not a few works that have been excluded. Also, as he approached from a synchronic point of view, the changes in the poetic world were not illuminated. Based on this critical mind, Ki Hyeong-do's poems were reconstructed and approached in chronological order.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detailed period of individual works is not accurate, but the key point is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work in 1978 before debut and the work in 1989 immediately before his death.

In Ki Hyeong-do's poems, 'loneliness' does not mean only the state of alienation from the object, but a transition to what one chooses. Accordingly, in Ki Hyeong-do's poems, he only 'hated his life' but did not transfer the responsibility to others. Also, it is impossible to go back to the state of 'already old' that came as a result of the choice. Recognizing the 'impossibility of

overcoming', at the same time opening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with others.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loneliness' in Ki Hyeong-do's poetry is not in frustration, anxiety, or despair, but in the ethical attitude of the poetic subject who want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hoice and its consequences.

Key words : Ki Hyung-do, Solitude, Loneliness, "*Ki Hyung-do complete collection*", Disruption, Suture, Love, Cracks

[참고문헌]

■기본자료

기형도 저, 기형도 전집 편집위원회 엮, 『기형도 전집』, 문학과지성사. 1999.

기형도,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91.

■단행본

정효구, 「차가운 죽음의 상상력」, 박해현 외 엮, 『정거장에서의 충고』, 문학과지성사. 2009.

라르스 스벤젠 저, 이세진 역, 『외로움의 철학』, 청미. 2019.

■논문 및 기타 자료

강동호(2019), 「희망이라는 이름의 원리-기형도의 90년대」, 『사이門SAI』 26호, 국제 한국문학문화학회, 2019. 169-199쪽.

김 현, 「영원히 닫힌 빈방의 체험」, 『입 속의 검은 잎』 해설, 문학과지성사. 1989.

서은송, 『기형도 시에 나타난 식물 이미지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유희석, 「기형도와 1980년대」, 『창작과비평』, 창비. 2003.

임세진, 「기형도 시에 나타난 소외 이미지 연구」, 『겨레어문학』 47집, 겨레어문학회, 2011. 227~257쪽.

임지훈, 『1980년대 최승자, 이성복, 기형도 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정교진, 『기형도 시에 나타난 소외 양상 연구』,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